기획 기사

현 의료서비스 어디까지?

임파선 조직검사후 신경 손상돼

최모 씨(여, 47세)는 경부(목) 림프절의 임파선염이 의심돼 우측 목 부위를 절개해 조직을 떼내는 검사(조직검사)를 받았다. 검사후 우측 어깨 관절 부위 통증이 심해 물리치료를 받았지만 차도가 없었다. 10개월후 정밀검사에서 우측 부신경(목에 분포돼 있는 신경으로 팔의 운동과 연관이 있음)이 손상돼 팔의 기능에 장애가 생겼다는 진단이 나왔다. 최씨는 조직검사할 때 의사의 부주의에 의해 장해를 입었다면서 배상을 요청했다.

처리결과는 이러했다

조직검사후 발생된 부신경 손상은 시술상의 잘못 이외에 알 수 없는 원인으로 발생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시술전 시술의 부작용 등을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설명의무 위반과 주의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 1천5백만원에 합의됐다.

10년 정기 검진으로도 폐결핵 진단하지 못해

소모 씨(여, 84세)는 기관지 증상 등으로 정기적인 검진과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기침 등 증상이 심해졌고 전신이 쇠약해져 대퇴부 골절상을 입었다. 대학병원의 응급실에 갔더니 골절 이외에도 중증 폐결핵(활동성) 진단을 받았다. 환자가 10년 동안 정기적인 방문 및 검진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의사는 결핵을 진단하지 못해 아들과 손녀딸이 감염된 것이다. 이에 소씨 가족은 10년 동안 정기적인 진찰 및 치료를 담당했던 의사가 폐결핵을 진단하

지 못해 악화됐고 가족마저 감염됐으므로 배상을 요구했다.

처리결과는 이러했다

2년 전에 검사한 흉부 방사선 사진에서 결핵이 의심돼 소씨에게 5일간 결핵약을 복용케 한 기록이 있으나 이후로는 결핵 치료 및 추적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의사는 결핵치료를 하다가 갑자기 중단한 사실에 대해 본인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라며 치료 소홀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다. 당사자간 4백만원에 합의됐다.

소비자 주의 사항

결핵에 대한 이환율이 급격히 상승해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된 바 있다. 이렇듯 생활환경의 변화나 위생상태의 저하 등으로 결핵균이 저항력이 약한 노약자나 심신이 허약한 사람에게 급속하게 전파되었고 제대로 치료받지 않은 사람에 의한 전파로 많은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노약자나 가족 중에 기관지 증상이 계속되면 흉부방사선 촬영 등으로 결핵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기관지 증상으로 정기적인 검진과 치료를 받았으나 결핵이 악화되도록 발견하지 못했다면 진료기간이나 검사내용에 따라 진료 소홀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쇄골하 정맥도관 시술 후 부작용 발생

엄모 씨(남, 34세)는 궤양성 대장염 치료를 받던 중 영양공급을 위한 혈관확보를 위해 쇄골하 정맥도관(장기적인 영양공급이 필요하거나 말초혈관이 약해 고농도의 영양제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쇄골 밑에 있는 큰 정맥에 도관을 인위적으로 삽입하는 것) 시술을 받았다. 시술 후 부작용으로 기흉(늑막에 공기가 들어가 폐실질이 압박 받게 되는 것)이 발생, 반대부위에 재시도했으나 기흉이 또 생겼다. 이에 엄씨는 담당의사의 시술 잘못으로 두 번이나 같은 고통을 겪었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처리결과는 이러했다

쇄골하 정맥도관은 인체에 침습을 가하는 행위로 시술 전 부작용 발생이나 시술방법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했으나 담당의사는 시술의 필요성만 설명하고 부작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경우 시술후 부작용이 발생해 다툼이 생겼을 때 의사의 시술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설명의무를 다한 것이 입증돼야 한다. 설명의무를 다했다 하더라도 고의나 과실로 인한 피해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등으로 70만원에 합의됐다.

사단법인 한국당뇨협회에서는 회원들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각 병의원에서 겪은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함께 나누는 코너를 마련합니다. 물론 당뇨인에게 소개해 널리 알리고 싶은 병의원이 있으시다면 추천도 가능합니다.

사연을 보내주실 때에는 자신의 실명과 전화번호, 주소를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한국당뇨협회 사무국 (02-2297-8540)
주소 :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301-3 동신빌딩 5층 편집부